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6/12/2022

22-25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Wh) The Solemnity of the Most Holy Trinity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Everything that the Father has is mine;
the Spirit will take from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요한 16,15/ Jn 16:15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윤(심포로사)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6월 / June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For families

We pray for Christian families around the world; may they embody and experience unconditional love and advance in holiness in their daily live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 The Solemnity of the Most Holy Trinity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Blest be God the Father, and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also the Holy Spirit, for he has shown us his merciful love.

【제1독서/First Reading】..... 잠언 8,22-31 / Prv 8:22-31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Lord, our God, how wonderful your name in all the earth!

【제2독서 / Second Reading】..... 로마 5,1-5 / Rom 5:1-5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Glory to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o God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

【복음 / Gospel】+ 요한 16,12-15 / Jn 16:12-15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Since you are children of God, God has sent into your hearts the Spirit of his Son,

the Spirit who cries out: Abba, Father.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6/12 10am	6/12 3pm	6/14 7:30pm	6/15 10am	6/16 10am	6/17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율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블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신바로, 홍마리아고레띠, 주윤철 미카엘, 이정숙, 강이나시오, 김엘리사벳, 김남희 카타리나		김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박우슬라 가정, 정윤정, 이니콜라스&테레사, 박마리아, 윤요세피나, 조타데오&마리아, 미셀&에버리 조세, 유재숙 카타리나, 김말가리다, 이마태오 가정, 고요셉, 에우제니아, 발렌티나, 마틸다, 이소피아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우리들은 신앙을 들어낼 때 오른손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이마와 가슴을 중심으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십자가의 선을 그음으로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들어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신비입니다. 또 동시에 많은 논쟁을 낳기도 했으며, 무신론자들에게는 공격받기 쉬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느님 아버지, 구세주인 하느님 아들, 생명의 주님인 성령, 이 세 위격(位格 persona, person) 안에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며 그리스도교의 중심 교의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역사 안에서 겪은 구원의 체험을 정립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난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로부터도 그리스도교를 구분해 주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일신론에 본바탕을 두고 있던 면에서 성부와 같은 힘과 영광을 지닌 위격의 존재는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교리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800년의 시간이 걸린 걸 보면 이 교리가 얼마나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2차 공의회에서 교부들은 성령을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천명했으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하느님이라고 공표합니다. 이로써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삼위일체 교리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마침내 1334년 요한 22세 교황(재위 1316~1334)은 삼위일체 축일을 성령 강림 축일 다음 주일로 지정하고 로마 전례를 거행하는 모든 교회의 의무 축일로 발표됩니다. 뒤이어 1911년 교황 비오 10세(재위 1903~1914)는 이 축일을 대축일로 공표되었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사제가 인사로 미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들의 신앙을 교우들과 함께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대선 신부

사랑은 무조건적인 세가지 동등한 속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수용
2. 이해
3. 감사

Entrance Hymn: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s and with us sing
Alleluia, alleluia
Bright burning with golden beam
Soft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Alleluia, alleluia, alleluia, alleluia, alleluia,

Responsorial Psalm

O Lord, our God, how wonderful your name
in all the earth!

Closing Hymn:

Joyful, Joyful, We Adore Thee

Joyful, joyful,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rs before Thee,
Op'ning to the sun above.
Melt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of doubt away;
Giver of immortal gladness,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Prayer to the Holy Trinity

Glory be to the Father,

*Who by His almighty power and love created me,
making m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Glory be to the Son,

*Who by His Precious Blood delivered me from hell,
and opened for me the gates of heaven.*

Glory be to the Holy Spirit,

*Who has sanctified me in the sacrament of Baptism,
and continues to sanctify me
by the graces I receive daily from His bounty.*

*Glory be to the Three adorable Persons of the Holy Trinity,
now and forever.*

Amen.

“Love is made up of three unconditional properties in equal measure:

1. Acceptance
2. Understanding
3. Appreciation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6/12 Sun 10am			박아가다/최클라라		
3pm		Cecilia Park Daisy Ramos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6/13 Mon	No Mass				
6/14 Tue			박아가다	조율리안나	
6/15 Wed			안세실리아	김미카엘라	
6/16 Thurs			최클라라	김미카엘라	
6/17 Fri			김마지아	조율리안나	
6/18 Sat	No Mass				
6/19 Sun 10am			최클라라/오미카엘라		
3pm		Fred Garcia Asela Garcia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본당소식 / Parish News

◆ 교구 은퇴사제을 위한 2차 헌금 (Diocesan Priests' Retirement Collection)

일시(Date&Time): 6/12(일/Sun)

◆ 전례부 모임 (Altar Server Meeting)

일시(Date&Time): 6/26(일)

장소(Place): 양업관

◆ 성인 복사 모집

문의: 김마지아 (303)-882-7022

◆ 6월 대축일 미사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6/12(일) 10am
-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6/19(일) 10am
-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낮 미사: 6/23(목) 10am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6/24(금) 7:30pm
-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 낮미사: 6/29(수) 10am

◆ 성체조배실 운영

사용시간:

화/수/목/금/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삼위일체 교리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53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세 하느님이 아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이 위격들은 신성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삼위는 서로 동일하고, 동일하게 영원하고 전능하다. 그런데 이 위격들은 서로 “실제로 구별된다...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발하시는 분이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54항)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적 존재는 서로 다른 역할과 활동을 통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성부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파견돼 계시와 구원 활동을 하시며, 성령은 우리 곁에 함께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 나라로 이끄신다.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은 한 마디로 사랑이시다. 하느님께서 이미 영원으로부터 “자유로이 당신 복된 생명의 영광을 나누어 주고자”(「가톨릭교회 교리서」 257항)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은 삼위일체의 사랑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고, “창조의 업적과, 인류의 범죄 이래 구원의 역사 전체와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성자와 성령의 파견 안에 전개된다.” 이러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하느님 세 위격의 공동 작업’(「가톨릭교회 교리서」 258항)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가톨릭교회 교리서」 260항)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정하려는 역사상의 많은 시도들에 대해 오랜 신학적 성찰을 통해 믿을 교리로 확립되고 선포됐다. 신학은 삼위일체에 대해,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하느님의 내적 본질을 지칭하는 ‘내재적 삼위일체’, 인간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느님의 실재를 지칭하는 ‘구세경륜적 삼위일체’로 나눠 설명한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 사변적으로 고찰하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세경륜적 삼위일체는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인류와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행업을 삼위일체의 본질로 파악한다. 구세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별개가 아니라, 오히려 내재적 삼위일체의 계시이다.

참조: Catholic times



SUNDAY SCHOOL

▪ 주일학교 여름 캠프 Fundraising

판매: \$269 Fund Total as of 6/5: \$1,619

주일학교 여름 캠프 (Summer Camp)

7월 8일(금) - 7월 10일(일)

참가비: \$150/person

등록 마감: 6월 15일(수)

장소: 48480 foolish pleasure rd. Aguanga, CA 92536

대상: 1학년~9학년 (3학년 이하 부모참가 필수)

Building bridges : Renewing the sense of the community in the new heaven and earth.

새 하늘 새땅에서 공동체로 거듭남에 있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신앙의 연결 고리를 만들수 있는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부모님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캠프 비용 모금을 위해 매주 주일학교에서 커피와 레모네이드를 판매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6/5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1,125 (137명) 3pm: \$258 (30명)
교무금 Envelope	\$3,100 고명화, 김연희, 김주호, 조준형, 이명화, 유재기, 채진, 염연광, 정희정, 이마태오, 차영숙
교구발전기금 DDF	\$
합계 Total	\$4,483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Taiyos Sushi&Poki

951-343-1112
11120 Magnolia Ave., Riverside
(Westgate Plaza)
<http://taiyossushi.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20. 미사 때 신자들도 신부님처럼 성혈과 성체를 함께 모실 수 있나요?

양형 영성체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신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잔을 마셔라”(마태 26,27).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그대로 미사 때 성체와 성혈을 나누었습니다. 이 전통은 12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성혈을 마시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성체 때 신자들이 성혈을 흘린 위험성이 있고, 둘째는 성체 안에 온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피를 포함하여 현존하신다는 신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는 예수님의 살만 존재하고 성혈 안에는 예수님의 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에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현존하시고 성혈 안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세부터 성체만 모셔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성혈을 흘릴 위험성을 막으려고 신자들에게는 성체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1415년 독일 콘스탄츠 공의회는 성혈을 신자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였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는 양형 영성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경우 신자들도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전례 허장 55항 참조). 양형 영성체는 성체를 받아 모신 뒤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는 방법과 축성된 빵을 성혈에 적셔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286-287항 참조).